

제60사단 권율부대 창설 제47주년 기념행사 거행

제60사단 권율부대 창설 47주년 기념행사가 8월 1일 11시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60보병사단 권율강당에서 백자성 사단장을 비롯한 부대원과 기념행사를 위해 60사단에서 초청한 안동권씨 대중회 권영하 부회장과 권오상 사무총장, 권철환 편집국장을 비롯하여 행주대첩에서 권율도원수와 함께 애적을 물리쳤던 참모장 조정 장군의 후손 풍양조씨 종친회와 이신의 장군의 후손 전의이씨 종중, 선거이 장군의 보성선씨 종친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먼저 안동권씨 대중회 권영하 부회장은 사단사령부 앞에서 백자성 사단장에게 권웅렬 고문이란 해준 태울 300장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서 건물에 들어서자 사단 현관 벽면에는 권율도원수의 늠름한 모습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대첩과 이치대첩 등의 빛나는 전승과 2022년 부대정신으로 선포한 권율도원수의 네 가지 정신 즉 절의엄퇴(節義嚴退: 청렴과 절개, 의리, 사양함과 겸양은 늘 지켜야 한다), 위국헌신(爲國獻身: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전승불복(戰勝不復: 전쟁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동심협력(同心協力: 마음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백자성 사단장은 부대정신의 의미와 바로 옆에 설치된 권율도원수 모습의 형상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2층 복도에는 권율장군의 영정과 임진년에 쓴 시가 걸려 있었다. “이로운 것과 불리한 것은 때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당할 뿐이다. 오! 슬프다..... 우리 의병의 지상명령에 거부한 자가 있다면 죽음뿐이다.”라는 글이었다.

사단장실에서는 1975년 부대창설에서부터 ‘권율의 기백을 담은 최정에 동원사단’ ‘우리는 행주대첩의 위업을 계승하여 서울 사수와 조국 수호의 선봉이 된다’는 부대 홍보 동영상을 시청했다. 60사단은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동원사단으로서 현역과 예비역의 팀워크를 훈련하고 전시 필수자원을 확보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로서 부대원은 모두 “나는 권율인입니다. 우리는 권율부대원입니다”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백자성 사단장은 역사적인 호국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국가총력전에는 사명감과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모티브가 중요한데 권율장군의 일생과 임진왜란 시 국가 위기를 대하는 철학과 자세는 물론 백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독산성 세마대 등에서 보여주었듯이 예전에 활용했던 전략전술이 아닌 창의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능력 등이 사단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고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2000년대 초에 60사단을 권율부대로 명명하게 되었고 2022년 부대정신까지 선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하 부회장은 안보가 중요하다. 직접 와서 사단장님과 장병들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사단장님 이하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안동권씨 대중회에서는 고양시 유림이 주관하고 있는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권해욱 회장님께서 무척 애쓰시고 있다. 국가행사로 격상되면 60사단 위상



백자성 사단장이 권영하 부회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도 제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자성 사단장은 권영하 부회장에게 사단 창설 47주년을 맞아 권율장군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게 됨을 기념하고 안동권씨 대중회와 제60보병사단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원한다는 기념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권율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부대 창설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군악대에 맞춰 엄숙하게 진행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축전을 보내 창설 47주년을 축하하며 강하고 자랑스러운 보병사단으로 거듭나 동원 중요 부대로서 예비군 전력을 정예화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한 축으로서 화합하고 단결하여 권율부대가 교육과 전시 임무를 발전지향적으로 수행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를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축하공연에서는 김태현 중위가 첼로를 연주했고, 이은명 대위는 첼피온 등을 불러 장병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백자성 사단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우리 부대 47주년 생일이다.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안동권씨 대중회와 풍양조씨 종친회, 이신의 종중과 보성선씨 종친회에서 오셨다. 큰 박수로 환영하자고 하자 참석자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계속해서 사단장은 취임 시에 인화단결하는 부대, 미래를 준비하는 부대가 되자고 말했는데 이것이 동심협력의 정신이자 전승불복의 우리 부대정신이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생존과 안위의 최선책이다. 국민의 생존과 번영이 직결되어 있다. 때문에 군인은 숭고한 사명과 기개를 가지고 이 한 몸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것이 절의엄퇴 정신이요 위국헌신의 정신이다. 군인정신이자 사단정신이다. 권율장군의 기백을 이어받아 최정에 부대가 되어 사단의 역사와 전통으로 승화시키자. 오늘의 사단이 있기까지 헌신한 선배 전우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권율장



백자성 사단장이 권율장군 형상 앞에서 권율장군의 기백을 받기 위해 방문객이나 장병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악대와 장병들

군 후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기념행사가 끝나자 사단장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과 안동권씨 대중회 등 각 종중 후손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서 권율화관으로 자리를 옮겨 부대에서 마련한 점심식사를 하며 답소를 나눴다.

권율부대는 권율부대 명칭뿐만 아니라 권율역사관, 권율강당, 권율헬스장, 권율회관, 식당 내 권율장군실 등 물리적인 측면은 물론 부대정신까지도 사단장을 비롯한 전 부대원이 철저히 무장하여 권율장군의 기백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앞으로 제60보병사단 권율부대와 안동권씨 대중회는 창설 47주년을 계기로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했다.

편집국장 권철환

능곡회 창립 36주년 기념 및 복회 개최



능곡회 창립 36주년 기념 및 복회(伏會)가 8월 27일 오전 10시 안동시 남후면 암산1길 암산유림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코로나가 다소 완화되는 바람에 복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권계동, 권중준 대중회 고문을 비롯하여 권기창 안동시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총회장, 권중근 시종공파총회장, 권순택 정조공파총회장,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권기현 능우회장, 권오의 대중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광택 도의원, 권기탁, 권기운 시의원, 권영구 북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 남안동농협조합장, 권주일 권사모 고문, 능곡회원 및 능우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권용철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내빈소개, 회원간 상응례를 하였다.

권오성 능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6년 8월 8일 안동지역 청·장년 35명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능곡회가 36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현재 회원도 1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오늘의 능곡회가 있기까지 능우회원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같이 좋은날에 푸짐한 음식을 마련해 놓았으니 마음껏 드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기현 능우회장은 인사말에서 “집행부가 행사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았으며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권철환 안동종친회장은 격려사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문중에 관심이 없어서 1천년의 오랜 역사의 대가 끊어 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안동시정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으며 지금까지 애물단지로 여기던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을 팔아 보물단지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권 시장은 “경북북부지방의 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 위

해서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박사(전 국립 안동대 교수)는 격려사에서 “전국에 권씨의 성이 다섯 개가 있다”고 말문을 연 후 “시조 태사공이 언제 출생하였는지 부인의 성이 무슨 성인지 지금까지 조사 연구를 해봐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고려 태조 930년 안동 권씨로 특성하여 올해까지 1092년을 이어오고 있을 뿐 시조님에 대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축사, 격려사가 끝나자 권오성 회장은 능곡회에서 능우회로 임회하는 권오을(전 국회의원), 권영목(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지사) 두 회원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했다. 이어 권 회장은 능곡회 발전에 도움을 준 권영건(안동권씨종보사 보도부장)에게 감사패를, 권진업(사무차장), 권용성(재무차장) 등 두 회원에게 특별공로패를 각각 전달했다. 또 이 자리에서 권오갑(부정공파, 안동우체국), 권호영(북야공파, 능곡농업 대표) 두 명을 신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오늘의 능곡회가 있기까지 도움을 준 능우회원을 대표해서 권기현 능우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밖에 권영덕 능곡회원(사진작가)은 자신이 직접 찍은 안동댐 방류 때 무지개가 비치는 대형 및 중형 사진 10점을 권오성 회장에게 선물로 기증했다. 상패 전달식이 끝나자 권기창, 권기현 능우회장 등이 경품추첨을 하기도 했다.

이날 점심은 맛있는 선지국밥과 비빔밥을 선택하도록 하고 찜닭, 송편, 기지 떡, 부침개, 수박, 소주, 맥주, 음료수 등 푸짐한 음식을 마련, 5-6명씩 원탁에 둘러 앉아 정담을 나누면서 점심을 먹었다.

2부 행사는 노래자랑, 전체 OX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권오성 회장과 권태형 상임부회장이 공동으로 만든 태울 1장을, “뿌리깊은 안동권씨” 책 1권(저자 권영한씨가 기증), 간고되어 한손(권동순 기증)씩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로 나누어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종친회 산하 24개 읍·면·동 지회장 회의 개최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는 종친회 산하 24개 읍·면·동 지회장 회의가 지난달 29일 낮 12시 안동시 당북동 제비원으로 ‘부항한정식’식당에서 개최하였다. 안동종친회장이 바뀌고 신임 권철환 회장이 자리를 마련한 이날 회의는 24개 읍·면·동 지회장과 첫 만남으로 최근 들어 지회장 모임은 처음 있는 일이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숙동 전 안동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신임 회장은 젊고 추진력이 있어서 밀어 부칠 힘이 있다”고 칭찬한 후 “앞으로 읍·면·동 지회장과 협의해서 안동종친회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철환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른들이 살아 계시л 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지회장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일일이 자기소개를 하였다. 때마침 권기창 안동시장이 방문, “앞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안동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하자 권숙동 전 종친회장은 “권기창 안동시장이 시정을 잘 하시도록 도와주자”며 건배 제의를 하기도 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읍·면·동 지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지회장들을 이끌어 나갈 회장에 권영직씨(옥동), 부회장에 권순택씨(남선면)를 각각 선출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권기복씨, 안동권씨 추밀공파대보 등 기증

안산에 거주하는 권기복(權奇福, 추밀공파, 36世)씨가 2022년 8월 24일 성화보 영인본 1권과 안동권씨 추밀공파대보 28권(天-歲),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 해동이, 1989) 상, 중, 하 3권, 정간공실기(貞簡公實記, 1998) 상, 하 2권, 안동권씨세보 5권(甲~戊, 단기 4290년), 양촌선생문집요활(陽村先生文集要撮, 단기 4287년) 문충공 비문과 묘도가 적혀있는 책자 등 40권을 대중회에 기증했다.

위 기증품은 권기복씨 부친 권재휘씨께서 보관해 오던 자료로 얼마 전 부친께서 별세하시자 대중회에 기증한 것이다.

편집국장 권철환



●배고장 독립애국지사를 찾아서

삼란(三蘭) 권영두(權寧斗) 선생과 뇌산(磊山) 권중박(權重璞) 선생을 중심으로

권해두 (36세, 북야공파)

황매산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달려 대병의 경계에 이르러 금성산이 되고 금성산으로부터 동쪽으로 뻗어 허굴산이 되었다. 또, 한 줄기는 황강의 뒤쪽에 이르러 약건산이 되었다. 이 세 산이 합천 대병면의 대병 들을 솔밭처럼 둘러싸고 있어 이를 삼산이라 부른다. 이 가운데 약건산 아래에는 안동 권씨 감정공계 문중이 터를 잡고 600여 년을 대대로 살고 있다. 여기가 삼란 권영두 선생이 태어난 대밭골(죽전) 마을이며, 그 남쪽 마을인 귀이목이 바로 뇌산(磊山) 권중박 선생이 거처하던 마을이다.

권영두(權寧斗) (1874. 8.18~1961. 9. 18) 선생의 자는 진구, 자호는 삼란이며, 합천(陜川)군 대병면 죽전 마을 출신이다. 삼외재 권명희, 심석재 송병순 선생 문하에 출입하였다. 골짜기 건강하고 음성이 청량하였으며, 젊어서부터 1896년 진주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한 노응규 의병장의 영향을 받았다. 후손인 권진수(14회), 권진석(18회)은 향리의 삼산초등학교 동문이다.

권중박(權重璞) (1894.12.6.~1949.2.12.) 선생은 호가 뇌산(磊山)이며,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귀이목 마을 사람이다. 한학을 수학하였고 유서강(諱:遠重) 선생을 사사하였으며, 1919년 3월에 독립운동 선봉 역할을 하였다. 거사 후 피신 중에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진주형무소에서 1년 6개월 복역하였다. 1923년에서 1926년까지 경리보 및 교사 생활을 하였으며, 1948년 삼산초등학

교 건립위원장 및 기성회장을 역임하였다. 1949년 자택에서 극렬 좌익 계열의 야습에 암살당하였다. 합천군민들은 비통한 가운데 선생을 애국지사로 예우해 합천 군민장을 치렀다. 1963년 10월 11일 내각 수반 김형철의 표창장(제8433호)을 수상하였고, 뇌산공 추모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의사비를 세웠다. 후손인 권영옥(12회), 권영수(16회), 권숙희(21회), 권옥희(23회), 권영규(27회)가 모두 삼산초등학교 동문이다.

합천 만세운동의 경과와 결과를 살펴보면 1919년 3월 초순 고향 동지인 임상중 선생이 서울로부터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내려와 지방인사들을 초청, 선언문을 공람시키고 지역 내 인사들과 동맹하여 거사할 것을 밀약하였다.

당시에 선두에 서신 것은 권영두, 권중박, 정시권, 유인수, 권양희, 송현기 선생 등이며, 거사 준비와 밀의를 거듭한 끝에 3월 20일 고현 장남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권영두, 권중박 선생은 역평리에서 선언서를 등사케 하고, 크고 작은 태극기를 만드는 한편 삼산 방면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고현, 병목까지 지원하는 등 거사에 심혈을 기울여 폭넓게 활약하였다.

같은 달 20일 권영두, 권중박 선생의 주동인물들의 비밀 모의에 따라 다른 장날과는 달리 아침부터 많은 군중이 장터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권영두, 권중박 선생 등은 거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몰래 감추고 장터로 잠입하였다. 오후 1시쯤

수천 명(약 4천 명)을 헤아리는 면민을 고현시장과 중간 지점에 집결시켰다. 권영두 선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권중박 선생 등 만세 주동자의 선창에 따라 군중들은 손에, 손마다 태극기를 흔들며 충천할 기세로 만세를 외치며 고현시장으로 돌진해 주재소를 둘러싸고, 권영두 선생과 권중박 선생은 선두에서 이를 진두지휘하였다. 연이어 먼소까지 습격, 문서를 죄다 약탈하여 불살랐다. 사건 이후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필살로는 형언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대구 형무소와 진주 형무소에서 각기 옥고를 치렀다.

우리 고장 후예들은 이러한 독립운동가요 애국지사들의 향리에 태어난 자부심을 갖고, 이분들의 유지를 받들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고향을 아끼는 애항심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가야겠다. 자랑스러운 고향 삼산과 더불어 삼산 동문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

☞참고자료 : “독립운동사자료집” 5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합천3·1운동(陝川三一運動), 설암문집(雪巖文集) 권옥현, 합천의 뿌리, 카페: 합천땅 그리고 쪽빛 하늘 (박흥성)